

삼성전자, HBM 공급·개발 주력... '반도체 왕좌' 되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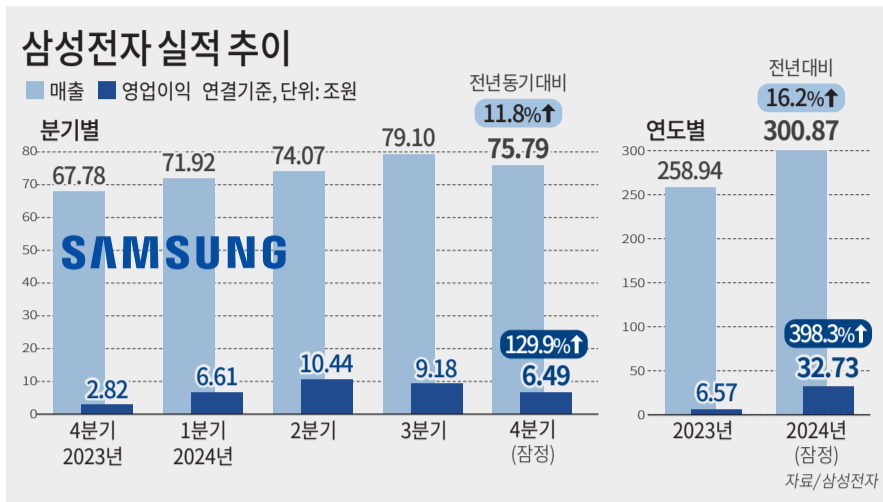
지난해 4분기 DS부문 실적 저조 HBM4 개발 등 정면돌파 예고 일각선 '딥시크' 호재 작용 분석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강자 삼성전자가 지난해에 SK하이닉스에 처음으로 왕좌를 내줬다. 인공지능(AI)시장 성장과 함께 급팽창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승패를 갈랐다. 삼성전자의 위기 돌파 방안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HBM 제품 비중 확대와 '딥시크'의 출현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 8조 차이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매출은 30조1000억원으로 이중 메모리매출은 23조원이었으나 영업이익은 2조9000억원에 그쳤다. 연간 영업이익은 15조1000억원이었다.

반면 경쟁사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와 연간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삼성전자의 실적을 크게 뛰어넘었다.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은 8조828억원.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매출은 66조, 영업이익은 23조3917억원



을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보다 8조원 이상 앞섰다.

지난해 반도체 사업의 승패를 가른 주요 원인은 HBM이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등에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해 왔고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HBM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호실적을 이뤘다. 4분기 매출 중 40%가 HBM에서 나왔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HBM 물량도 이미 완판하는 등 작년의 여세를 몰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HBM 실적 기여도가 낮은 삼성전자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 범용 메모리에서도 수요 침체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4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에도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삼성, HBM 공급 두배로... 'HBM4 적기 개발'

삼성전자는 향후 반도체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HBM 공급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엔비디아에 HBM3E를 공급하는 것을 중심으로 ▲HBM4 적기 개발 ▲중국 등 경쟁사 견제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31일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엔비디아로부터 HBM3E 8단 공급 승인을 얻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이 가능

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시적 수요 공백을 언급하며 올해 1분기에 HBM 매출 비중이 외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만약 HBM 3E를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면 수요 공백이 발생할 리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레거시(구형) DRAM은 탄력적으로 생산하고, 고부가 가치인 HBM 생산에 집중하며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고객 수요가 올 2분기 이후 HBM 3E 8단에서 12단으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라며 "고객 수요에 맞춰 HBM 공급량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16단 제품 경우 샘플을 제작해 주요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HBM3E를 재설계 하는 동시에 HBM4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 규제 완화 시급

이 밖에도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이 삼성전자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AI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고비용 고성능 GPU H100을 사용하는 반면, 딥시크는 비교적 저성능인 H800 칩 2000여 개로 단 2개월 만에 개발했기 때문. 결국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가 꼭 필

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AI 업계에 심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업계의 생태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AI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31일 콘퍼런스콜에서 딥시크에 대해 "시장내 장기적 기회 요인과 단기적 위험 요인이 공존할 것"이라며 "GPU에 필요한 HBM를 여러 고객사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내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해지 가능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무 제한을 풀어야 중국 기업들을 따돌리고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근무시간 규제로 인해 납부 지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반도체특별법에 근로 시간 특례를 도입하면 가장 빠르게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경제적 보상과 건강 보호 조치 또한 구축된다면 중장기적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oul.co.kr

덩치 키우고 편의성 개선... 패밀리카 최적화



2세대 팰리세이드

디자인 등 고급화... 사전계약 돌풍 고속주행시에도 안정적 성능 발휘

"아빠 이차 디자인 너무 예뻐요."

지난달 21일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1층 전시장을 찾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관심은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2세대 팰리세이드에 집중됐다. 특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은 넓은 공간을 갖춘 팰리세이드를 타고 싶다는 조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팰리세이드는 2018년 첫 출시 이후 글로벌 누적 87만대를 넘기며 현대차의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자리잡았다. 넓은 실내 공간과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한국의 대표 패밀리 SUV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만큼 6년만에 새롭게 선보인 팰리세이드를 만난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미 사전계약 물량만 4만5000대를 넘어서며 인기를 검증하고 있다.

이날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시승을 진행하며 차량의 매력을 분석했다.

일단 첫 인상은 한층 커진 차체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적용해 더욱 강인해졌다. 전장과 전고, 전폭 모두 1세대 모델보다 커졌다. 전장은 65mm 길어진 5060mm, 전고는 15mm 높아진 1805mm, 전폭은 5mm 늘어난 1980mm다. 3열과 트렁크의 공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3열에 성인 남성(키 177cm)이 탑승해도 답답하거나 불편함



현대차 2세대 팰리세이드 외관



현대차 2세대 팰리세이드 실내. /양성운 기자

은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성인 남성 3명이 탑승하긴 무리가 있었다. 트렁크 용량은 317L이며, 3열 시트를 접으면 729L까지 늘어난다.

주행성능은 1세대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개선했다. 차체가 크고 전륜 구동 모델에서 발생하는 롤링 현상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는 엔진과 구동계, 차체 바닥 부품을 낮게 배치해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을 낮춘 덕분이다.

고속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을 이어갔고 가속 성능도 부족함이 없었다.

시승차량은 2.5L 가솔린 터보 모델로 최고출력 281마력, 최대토크 43.0kgf·

m를 제공한다. 큰 차체를 움직이기에 힘이 부족하지 않았으며, 고속 주행에도 무게 중심이 낮은 세단처럼 바닥을 단단하게 잡고 달리는 점은 인상적이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흔들림은 크지 않았다.

실내 곳곳에는 패밀리카가 갖춰야 하는 다양한 편의기능을 적용했다. 1열 중앙에 위치한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운전석 방향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디지털 센터 룸이라는 화질이 선명해 운전의 부담을 줄여줬다. 2열 시트는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기울일 수 있도록 설계해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2열 다이내믹 바디커어 시트는 진동 소음이 커서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세대 팰리세이드는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첨단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전체적으로 패밀리카로 안정맞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팰리세이드 2.5터보 가솔린 모델 가격은 9인승 4383만원, 7인승 4447만원부터며, 2.5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9인승 4982만원, 7인승 5068만원부터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스탠바이미' 후속작 공개

5일 라이브방송... 21일 정식 출시

LG전자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LG 스탠바이미 2'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LG 스탠바이미 2는 이동식 라이프 스타일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출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작이다. 이번 신제품은 화면부를 스탠드와 분리할 수 있어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후속작에 바라는 고객의 의견을 제품 기획 단계부터 반영, 장점을 강화하고 원하는 바는 보완해 이번 제품을 설계했다.

무빙휠을 활용한 뛰어난 이동성과 다양한 자세로 시청 가능한 편리한 사



스탠바이미 2 /LG전자

용성이 LG 스탠바이미의 차별적인 장점으로 꼽혔는데 신제품에서 더 편리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달 5일 라이브방송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스탠바이미 2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21일 정식 출시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인테리어핏 키트' 출시

시스템에어컨 간편 설치 가능

삼성전자가 천장 단내림 공사 없이도 시스템에어컨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는 천장 내외벽 사이가 좁은 구축 아파트나 주택에서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위해 진행하던 천장 단내림 공사를 대체하는 패넌이다.

천장 단내림 공사는 천장 내벽 절단과 목공·도배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해 2~3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층고가 낮아 지거나 공사 부위가 돌출되는 단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를 활용하면 천장과 시스템에어컨의 단차를 들뜸없이 연결해 공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의 무풍 홀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해 시스템에어컨과 하나의 제품처럼 조화롭게 이어진다.

설치 방법이 간편해 하루 만에 시공이 가능하다. 천장 외벽을 타공해 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를 설치하고 설치된 키트에 시스템에어컨을 거치하는 방식이다.

삼성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사이즈에 따라 18만~19만원이다. /구남영 기자